

자돈 설사병 발생시 대처 방법

12월로 접어들게 되면 전반적으로 분만 예정복수가 농장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다른 계절에 비해 약간씩은 줄어든다. 이는 여름철 번식성적의 저하와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분만 예정복수도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또한 추운 날씨와 함께 자돈 설사로 인한 피해 위험이 증가하게 되므로 실제 생산되는 자돈의 수가 부족한 경우가 많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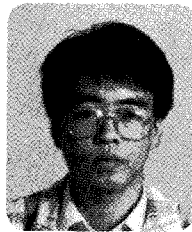
이미 결정된 분만 예정복수에서 확보된 자돈을 최대한 피해 없이 길러내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호에서는 계절적으로 문제될 수 있는 자돈 설사병의 발생시 대처법을 위주로 알아보기로 한다.

1. 설사병 발병시 컨트롤 원리

설사병 발병시 가장 먼저 행해야 할 사항은 정확한 진단이다.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진 후 컨트롤의 방법



이재춘 원장
한별 피그클리닉

을 결정한다.

- 최초 발생 후 돈군의 면역을 신속히 올려 주는 것이 중요하다.

- 소독과 전파 차단이 피해를 최소화 할 것인가를 검토한다. 이에 는 다음의 두 가지 선택이 있다.

* 빠른 전파 → 어느 정도의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확실한 방법

* 최대한 억제 → 성공시는 이득이나 자칫 장기화할 위험이 있다.

따라서 이 두가지 중 어느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는 농장의 시설, 관리 능력 등에 따라 선택되어야 한다.

- 일반적으로는 발생시 2주 이후 분만복들에는 신속하고 강하게 전파시키고, 2주 이내 복은 가급적 분만후 3주까지 바이러스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질병 전파를 완만히 해서 돈군의 면역도가 신속히 높아지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근절에 역행 할 수도 있다.

2 바이러스 전파를 억제하는 컨트롤 방법

질병 발생 초기에 증상이 경미하게 진행하고 전파 속도 또한 느린 경우 최대한 전파를 억제하는 쪽으로 처치 방향을 잡는다.

가. 사양관리와 환경관리 측면

- 돈사 내·외부 소독 횟수 증가 (1일 1회)
- 각 돈사 출입구에 발판 소독조 설치 및 기구의 돈사간 이동 제한
- 분만사 입식 모돈의 돈체 소독 철저
- 분만사 실내 온도는 25도, 가급적 과습을 방지하고 청결하게 유지
- 음수소독 및 분만사 시설물에 대해 화염 소독 실시
- 분만 처치후 바로 초유를 먹임(초유 섭취 전 유방 소독 실시)
- 감염 사이클을 차단하기 위해 별도의 장소를 임시 분만틀로 활용 할 수 있다. (자돈사에 분만틀 임시 설치)
- 회복 가능성 없는 자돈은 조기에 도태시



키고 모돈도 이유시켜 분만사내 사육두수를 일시적으로 줄임.(모돈의 번식력 저하를 고려해서 결정한다.)



나. 모돈에 대한 처치

- 정확한 진단을 거친 후 도태 자돈의 장을 분만예정 기준 1주 이상 되는 모돈에 먹임. (3일 후 1회~2회 더 먹임)
- 분만사 실내 온도 상승에 따른 모돈의 식욕부진 및 저유증 예방을 위한 강제급수 시도와 예방적 약제의 주사.
- 분만 2주전 모돈에 철분 5ml 주사 및 구충 실시

다. 자돈에 대한 처치

- 경구감염 경로를 가능하면 차단
- 탈수 예방을 위해 1일 2회 전해질 보강 주사 및 3일령 자돈에 철분주사 실시
- 분만전 모돈의 배분자리 및 항문 주위 청소 및 소독
- 분만후 초유를 충분히 먹임
- 생후 6~7일 이후에 설사를 시작하는 자돈의 모돈은 면역력이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므로 표시를 해 두었다가 다른 자돈을 양자포유 시키는데 활용

- 전해질 제제를 별도의 물통에 공급하여 자돈이 쉽게 먹을 수 있도록 해줌.

- 복강주사는 생후 6~7일경 부터 설사를 시작하는 복의 자돈에 실시한 경우 효과를 볼 수 있다. 그러나 생후 3일 이내에 설사를 시작한 경우는 큰 효과를 얻지 못한다.

- 분변 상태가 바뀌어지는 회복 자돈에 항생제, 수액 및 지사제 투여시 효과가 좋다.

3. 바이러스의 빠른 전파를 통한 컨트롤 방법

질병 발생초기에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고 매우 빠르게 전파되는 농장의 경우 이 방법을 적용시키는 것이 좋다. 최대한 빨리 바이러스를 확산 시켜 신속하고도 높은 수준의 돈군 면역도를 획득시키는 쪽으로 처치 방향을 잡는다.

가. 인공감염

<인공감염 재료 준비 법>

- 생후 2일째 설사 시작하는 자돈의 소장을 12 시간 후 취하여 익일 오전중으로 1차 인공감염 실시 하고 그후 3일 간격으로 2, 3차 인공감염 실시.

- 분만예정 1주 이상 남은 전체 모돈군에 인공감염 실시

- 1 차 인공감염 실시한지 6일 후 분만 복부터 설사증상 완화 및 생후 설사 시작시기가 지연을 기대. 늦어도 발생 14일 후 분만 복부

터는 종결을 목표로 함.

- 생후 설사 발생시기에 따라 재료 취하는 시기를 달리 한다.

* 생후 12~24시간에 설사 시작시 설사 개시 후 12시간 경과한 자돈의 소장을 취함.

* 생후 24~48시간에 설사 시작시 설사 개시 후 24시간 경과한 자돈의 소장을 취함.

- 치료의 기준 : 최초 1주일까지는 생후 48시간 이내에 설사 발생복은 치료 포기함. 그러나 48시간 이후 설사 발생시는 전해질 복강



치료 실시. (복강주사는 증탕에 약 40도 정도로 데워서 이용)

- 소독은 분만사에 설사가 발생했으므로 최초 발생후 1주간은 실시하지 않는다. (전 돈군에 신속히 전파를 위함) 1주 후부터 본격적으로 소독 강화.

- 최초 발생후 초기 1주간은 자돈이 죽을 때까지 그대로 포유지속 시킨다. → 신속한 전파와 모돈의 자궁 회복을 돕기 위해.

- 상황이 종결되기 전 까지 유도분만은 실시하지 않음.

나. 모돈관리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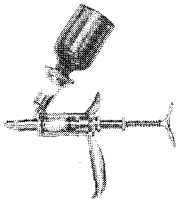
- 영양제 첨가, 지속성 페니실린 제제 주사 (분만시), 비칸톨 주사.
- 최초 발생후 7일 이후의 예정돈은 분만 1주전에 철분 주사 실시(모돈, 자돈의 면역증강 위해)
- 모돈 조기이유시 지속성 항생제 (PPS, TM/LA) + 소염제 주사
- 조기이유 모돈은 초기 1주간 1일 1kg사료 급여
- 다음 1주간은 2kg으로 증량

이 후 1주간 3kg 정도로 강정 급여 및 응돈 접촉. (이때 교배 들어가지 않으면 다시 반복적으로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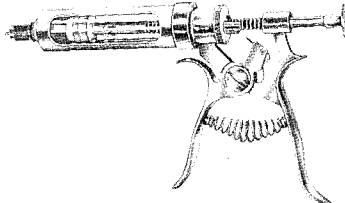
라. 경과

- 최초 발생 7일 후 분만복 부터 설사증상이 완화 될 경우 포유자돈에 대한 적극적인 복강치료 실시와 철저한 소독관리가 요구됨.
- 설사 종식 후 재감염 방지를 위해 소독을 일 1회 실시하고 분만사 기본관리 강화. **양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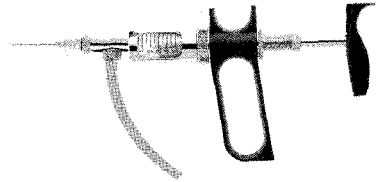
각종 주사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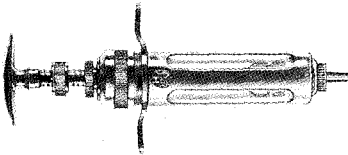
① FERROMATIC 주사기(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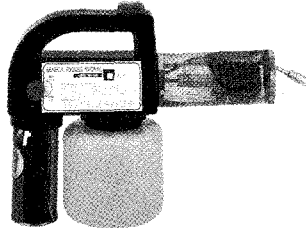
② REVOLVER주사기(3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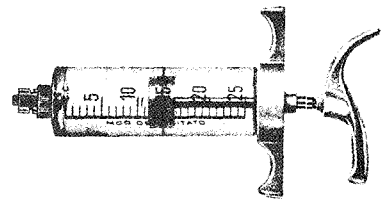
③ SOCOREX 연속주사기(1-5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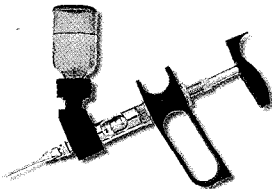
④ 철제주사기(10, 20m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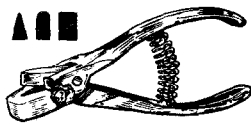
⑤휴대용 연막소독기(가스사용)



⑥P.V.C주사기(반영구)10ml, 20ml



⑦ SOCOREX 연속주사기(병장착용)



⑧ 이각기(귀절단)

KW 강 화 축 산

주소: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383-11
 ☎ 305-2548, 374-7013
 H·P : 011-9787-2548
 FAX : (02)308-1030